

# 2004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서정민(세종대)

- 1. 새 자료의 소개
- 2. 장편소설
  - 2.1. 한글대하장편
  - 2.2. 한문장편
- 3. 판소리계소설
- 4. 전기소설, 풍유록, 전
- 5. 영웅소설
- 6. 소설일반
  - 6.1. 소설론, 소설연구론
  - 6.2. 비교문학
  - 6.3. 고전소설의 현재적 의의 모색

이 글은 2004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을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우선 수량적 측면에서 조사된 연구 목록을 훑어보면 지난해 연구 성과는 예년에 못지않은 풍성한 결실을 이루었고, 더불어 각 세부 분야 별로 주목되는 연구 성과들이 적지 않아 질적인 면에서도 알찬 한 해였음을 확인케 한다. 다만, 이 모든 성과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고, 또한 얕은 식견으로 거론조차 못했거나 확인했더라도 그 의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도 적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혀 양해를 구한다.

## 1. 새 자료의 소개

지난해는 어느 때보다도 연구사적으로 의미 있는 새 자료 소개가 많았

다. 그간 독특한 작품 세계로 중국 소설 번역본의 오해를 사기도 했던 낙선재 소장본 <청백운>의 한문본이 소개되었고,<sup>1)</sup> 초기 영웅소설로 논의되는 <장풍운전>의 한문본 <금선각> 여러 종이 소개되었다.<sup>2)</sup> 그런가 하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5배 이상 많은 분량의 <김영철전>이 소개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sup>3)</sup>

이밖에도 영웅소설류에 속하는 <곽중운전><sup>4)</sup>과 가문소설적 성향을 보이는 <유성현봉 소설록>,<sup>5)</sup> 戊戌年(1898) 간기가 밝혀져 있는 완관본<심청가>,<sup>6)</sup>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가 1882년 번역하여 신문 연재한 <계림정화 춘향전><sup>7)</sup>의 소개는 고전소설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새 자료가 소개되었음을 보여준다. 각 방면 연구자들의 성실함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嘉林白氏之章”이라는 지장인이 있고 한문 원문에 언해와 주석까지 한 <서상기>를 비롯, 일본 교토대학 소장 새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가와이문고가 교토대학으로만 들어가지 않고 개인에게나 하버드 대학 등으로 흩어졌을 가능성을 추적한 논의도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sup>8)</sup>

- 
- 1) 조광국, 「<청백운> 한문본 연구-서지 연구와 서문 분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2) 김준형, 「<금선각>의 발굴과 소설사적 의미」,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3) 양승민·박재연, 「원작 계열 <김영철전>의 발견과 그 자료적 가치」,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4) 윤경아, 「<곽중운전>-계모와 열녀의 운명」, 『문헌과해석』 28, 문헌과해석사, 2004가을호.
  - 5) 김광순, 「새로 발굴한<유성현봉 소설록>에 대하여」, 『어문논총』 40, 한국문학언어학회(구-경북어문학회), 2004.
  - 6) 이태영, 『완관본 <심청가> 해제 및 영인』 국어사연구4, 국어사학회, 2004.
  - 7) 西岡健治, 「일본에서의 <춘향전> 번역의 초기양상-도수야사역 <계림정화춘향전>을 대상으로-」, 『어문논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구-경북어문학회), 2004 ; 西岡健治 교주, 박상득 번역, 『<雞林情話 春香傳> 해제 및 원문, 번역문』,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8) 정병설, 「일본 교토대학소장 새 자료 소개」, 『문헌과해석』 28, 문헌과해석사, 2004가을호.

## 2. 장편소설

### 2.1. 한글대하장편

최근의 한글대하장편 연구는 초기 연구들이 마련한 대하장편의 미적 특질이나 작품의 창작, 향유 방식 등에 관한 논의를 보다 정밀화하는 것으로 그 대체적인 경향을 짚어 볼 수 있다. <장난호연록>을 통해 기존 상층별 열의 의식과 미감으로 대변되던 대하장편소설 속에 적나라한 통속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분석해 보인 이지하의 논의나,<sup>9)</sup> 여성반동인물에 주목한 장시광의 일련의 논의,<sup>10)</sup> 동일한 유형의 사건을 형상화하는 두 작품의 의미 지향을 변별하고 이를 통해 향유층을 추론한 한길연의 논의,<sup>11)</sup> 이본 대교를 통해 드러나는 인물 형상화의 변이를 추적한 노정은의 학위논문 등이 이런 경향을 대변한다.<sup>12)</sup>

이 가운데 <천수석>이 드러내는 정연치 못한 서술과 구조적 결함에 주목함으로써 장편소설 창작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황을 짚어낸 송성욱의 연구<sup>13)</sup>나 <사씨남정기> 한문본과 한글본의 비교를 통해 한글과 한문이라는 표기 문자의 상이에 따라 서술 태도에도 차이가 나타남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글이나 한문을 주로 사용하는 독자층 성향의 차이임을 논의한 이지영의 연구<sup>14)</sup>는 작품의 내재적 분석을 통해 작품 외적 환경을 탐색하는 최근 대하장편 연구 경향을 잘 보여 준다.

- 
- 9) 이지하, 「인물형상화방식을 통해 본 <장난호연록>의 통속성」, 『한국문화』 3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4.
- 10) 장시광,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 장시광, 「<윤하정삼문취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양상과 그 서사적 기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 장시광, 「<이씨세대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양상과 그 의미」, 『동방학』 1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4.
- 11) 한길연, 「<옥원재합기연>과 <완월회맹연>의 비교 연구」, 『국문학연구』 11, 국문학회, 2004.
- 12) 노정은,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화 변이 양상 : 이대본과 서울대 21 권본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 2004.
- 13) 송성욱, 「<천수석(泉水石)>의 텍스트 결함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14) 이지영, 「<사씨남정기> 한문본과 한글본의 비교 분석-규장각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7, 한국문학회, 2004.

그런데, 이처럼 작품의 섬세한 분석을 통해 작품의 창작과 향유를 둘러싼 외적 환경까지를 재구해 가는 연구 방식에는 작품 자체를 제외하고는 이에 접근할 부대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한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된 <청백운> 한문본의 존재는 앞으로 이 분야 많은 연구의 촉발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조광국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백운> 한문본을 소개하고 그 서지와 서문 분석 등을 통해 그간 중국소설 번역으로 의심받던 작품의 국적 문제를 해소하였다.<sup>15)</sup> 더불어 서문에서 확인되는 작가 ‘초료산주인(鷓鴣山主人)’을 두고 최근 김영진은 홍낙술(洪樂述 1745~1810)일 가능성<sup>16)</sup>을 지적하였는데, 이 문제가 보다 명확히 규명된다면 한글 대하장편의 형성 과정이나 작자 논의에 있어 새로운 지남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승민은 『승정원일기』의 소설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18세기 궁중 안팎에서 국문본 <구운몽>이 향유되던 정황과 <홍백화전>이 김만중 소작이라는 점, <남계연담>이 중국에서는 원전이 일실된 번역소설이라는 점 등을 논의하였다.<sup>17)</sup> 이 또한 장편소설 연구를 진척시킬 소중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 2.2. 한문장편

이 분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19세기 한문장편소설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작가나 향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분야에 많은 연구자들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연구 성과도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19세기 고증학의 성장과 백과전서적 학문 경향 속에서 소설이 ‘實, 根을 갖춘 밭을 만듦’이라야 한다는 소설관에 입각하여 창작된 <옥선몽>의 특성과 창작 시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서경희의 학위논문과 이 시기 한문장편소설의 창작 기반과 유형

15) 조광국, 앞의 글.

16) 김영진, 「<선부군유수>에 대하여」, 한국중국소설학회 61회 발표문, 2004.

17) 양승민, 「<승정원일기>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이기대의 학위논문이다.<sup>18)</sup>

또한 단행본으로 나온 서신혜의 『김소행의 글쓰기 방식과 삼한습유』도 주목되는데, 선행 텍스트의 수용을 통해 소설 쓰기를 해 보이는 김소행의 글쓰기 방식은 서경희의 <옥선몽> 분석과 이지영의 <회선오세한단기화>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sup>19)</sup> 그런가 하면 엄기영의 <대관제몽유록> 창작방식 분석에서도 확인되는데,<sup>20)</sup> 이런 글쓰기 방식이 한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라기보다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한편, 18, 9세기 <금병매> 수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음사소설에 대한 개방적 수용 태도에 주목하고, 이런 양상이 서울의 도시적 발전과 관련한 것으로 논의한 김경미의 연구도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독특한 소설 지형을 그려보고자 한 연구이다.<sup>21)</sup>

### 3. 판소리계소설

이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지난해도 <춘향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가장 돋보인다. 단행본도 2종의 연구서가 확인되는데, 『춘향예술의 양식적 분화와 세계성』, 『경관방각소설<춘향전>과 필사본<남원고사>의 독자층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전자는 춘향 이야기가 설화와 고전소설, 판소리뿐만 아니라 창극이나 영화로 양식적 분화를 보인 것에 주목하여 각 분야별로 여러 연구자들의 개

18) 서경희, 「<옥선몽>연구 : 19세기 소설의 정체성과 소설론의 향방」,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 2004 ;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 창작기반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 2004.

19) 서신혜, 『김소행의 글쓰기방식과 삼한습유』 박이정, 2004 ; 서경희, 위의 글 ; 이지영, 「<回仙悟世鄚鄚奇話>에 나타난 장편 한문소설의 특징과 지향」, 『고소설연구』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20) 엄기영, 「<대관제몽유>의 창작 방법 연구-창작 소재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21) 김경미, 「淫詞小說의 수용과 19세기 한문소설의 변화-〈금병매〉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별 논의를 엮은 것이다. 중국 월극에 수용된 춘향전의 모습이나 베트남판 <춘향전>, 스페인 <라 셀레스티나>와의 비교 연구 등이 흥미롭다.<sup>22)</sup>

이에 비해 이창현의 개인 연구서인 후자는 그 치밀하고 성실한 연구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결과물이다. 동일 계열에 속하는 세책소설 필사본 <남원고사>와 경판방각본<춘향전>이 서사 구조와 향유 지역에 있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둘의 어휘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세책소설 필사본<남원고사>가 사건의 전개와 관련된 집약적 서술보다는 확대, 변이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있는 주변적 사실에 대한 서술을 중시하는 반면, 경판방각본<춘향전>은 서사의 선조적(線條的) 전개에 치중함을 밝혔다. 이런 점은 결국 국문소설의 독자층 분화를 확인케 한 것으로, 필사본 세책소설의 독자들은 소설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건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하는 표현지향성을 보인 반면, 방각본 소설의 독자들은 작중 사건의 전개 과정에 관심을 모으는 사건지향성을 보인다고 한다. 같은 국문소설 안에서 필사와 방각이라는 매체의 차이에 따라 작품의 지향과 그에 따른 독자의 성향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증명해 보인 연구라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다.<sup>23)</sup>

한편, <옹고집전>에 형상화된 진가 논쟁과 선악 대결이 외부 대상과의 대결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응시를 통한 온전한 삶, 온전한 나의 회복이라고 해석하고 이를 ‘자기실현’으로 규정한 이강엽의 논의는 고전소설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의미를 읽어낸 것으로 주목된다.<sup>24)</sup> 그런가 하면, 1910년대 나온 <춘향전>의 개작본 <약산동대 藥山東臺>를 논의한 심치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기 쉬운 20세기초 고전소설의 양상에 주목하여 연구 영역의 다변화를 보여주고 있다.<sup>25)</sup> 이런 점은 1900년대 창작된 <만하몽유록>이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드러내는 특징

22) 박진태 외, 『춘향예술의 양식적 분화와 세계성』 박이정, 2004.

23)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춘향전>과 필사본 <남원고사>의 독자층에 대한 연구』 보고사, 2004.

24) 이강엽, 「‘자기실현’으로 읽는 <옹고집전>」,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25) 심치열, 「구활자본 예경소설 <약산동대(藥山東臺)>의 서사적 측면에서 본 변모 양상 -<춘향전>의 전승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을 추적한 서신혜의 논의와 더불어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소설사 인식이 돋보이는 대목이다.<sup>26)</sup>

#### 4. 전기소설, 몽유록, 전

이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민족문학사학회에서 특집으로 마련한 16세기 소설사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된다. <천군연의>류의 심성소설이나 <설공찬전>, 그리고 몽유록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시기가 『금오신화』로 대표되는 15세기와 소설의 본격적인 흥성이 돋보이는 17세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임은 물론이다. 그래서 그간 이 시기의 개별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나, 고전소설사에 있어 16세기의 위상을 적절히 규명하는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6세기 소설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념의 시대 16세기, 문학 담당층은 여러 소설(적) 양식들을 통해 유가적 이데올로기를 표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소설은 흥미와 욕망을 퍼뜨리며 확산되어 갔다. 조현설은 전대 가전과 전기의 형식적 전통을 물려받은 몽유록이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가전, 전기와 정반대의 의도를 가짐으로써 보이는 이율배반적 성질에 주목하여 이 시기 몽유록의 위상을 점검한다.<sup>27)</sup> 정환국은 소설 향유와 배경의 충돌 속에서 둘의 조정론으로 등장한 소설교화론이 결국 소설 향유의 기반을 확장시켰음을 논의한다.<sup>28)</sup> 김현양은 이 시기 소설이 이념의 서사에서 욕망의 서사로의 변모를 논의한다.<sup>29)</sup> 요컨대 16세기 소설사는 이념을 구축하고자 했던 문학 담당층

26) 서신혜, 「<만하몽유록(晩河夢遊錄)>에서 작사와 유람의 기능」,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구-경북어문학회), 2004 ; 서신혜, 「<만하몽유록>을 통해 본 예국계몽기 선계서사의 양상」, 『도교문화연구』 20, 한국도교문화학회, 2004.

27) 조현설, 「형식과 이데올로기의 분화-16세기 몽유록의 생성과 전개」,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28) 정환국, 「<설공찬전>의 파동과 16세기 소설인식의 추이」,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의 의도와 이를 위해 그들이 택한 양식 자체의 반유가적 속성이 벌이는拮抗으로 해명되는 듯하다. 여기에 윤세순의 중국소설의 국내유입과 향유양상을 점검한 논의도 이 시기 소설 향유와 관련한 구체적 상을 드러내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29)</sup>

이외에도 개별 작품에 대한 섬세한 독법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명혼’이 실제 만남이라기보다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남성주인공의 가상적 심리 체험이라 할 초현실적 사건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만복사저포기>가 환상적인 명혼체험을 매개로 하여 주인공 양생이 세계와 자신의 부조리를 자각하는 것을 그린 작품으로 분석한 박일용의 논의가 주목을 끈다.<sup>30)</sup> 그런가 하면, 박효랑 사건이 실기, 서사한시, 전, 한글소설 등으로 다양하게 전유되면서 나타나는 서술 초점의 상이함이 17세기 이후 급속도로 일어난 사족층의 분화로 인한 것임을 논의한 류준경의 논의는 문학사회학적 관점에서 돋보이는 연구결과라 할 것이다.<sup>31)</sup> 한편, 『조선조 애정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sup>32)</sup>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해 지난해 나온 많은 전기소설 관련 연구들이 애정전기 작품을 대상으로 한 상황에서, 전기소설을 대부분 애정전기로 보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불교계 전기소설이라는 유형을 새로이 설정, 이에 따라 나말여초 이래 조선중기에 이르기까지의 불교전기소설의 유형성과 계통에 대한 사적 조망을 보여준 김승호의 논의가 새롭다.<sup>34)</sup>

## 5. 영웅소설

이 분야에서 가장 돋보이는 지난해 연구 성과는 <금선각>의 발견일 것

- 
- 29) 김현양, 「16세기 소설사의 지형과 위상」,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30) 윤세순, 「16세기 중국소설의 국내유입과 향유양상」,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31) 박일용, 「<만복사저포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32) 류준경, 「朴孝娘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33) 이정원, 『조선조 애정 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 2004.  
 34) 김승호, 「佛敎傳奇小說의 類型 설정과 그 전개 양상」,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이다. 초기영웅소설로 논의되는 <장풍운전>의 한문본인데, 논자는 여러 한문본을 소개하고 여기에 산재한 발문과 작가에 관한 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작품 내재적 분석을 통해 한문본이 국문본에 선행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였다.<sup>35)</sup> 이러한 <금선각>의 존재 양상은 앞으로 영웅소설의 형성 과정이나 향유 양상에 관한 보다 심화된 연구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윤희의 박사학위논문 <남정팔난기>연구는 기존에 소개 정도만 되었던 한문본을 본격 논의하여 한글본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둘 사이의 변별적 특징을 논의하였다.<sup>36)</sup> 앞의 <금선각>과 더불어 영웅소설의 한문본 존재가 많은 연구자들의 주의를 끈 한 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어, 지난 한 해에도 여러 편의 학위논문과 소논문들이 나왔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조혜란의 <박씨전> 연구로, 이종의 고통으로 다가온 여성의 전쟁 체험과 그 가운데 婦德이데올로기로는 포획되지 않는 여성성의 문제를 제기한 작품으로 본 연구시각이 참신하다.<sup>37)</sup>

한편, 윤경아가 소개한 <곽중운전> 역시 새로 소개되는 자료인데 영웅소설적 구조를 근간으로 하면서 악한 계모와 순절하는 열녀를 형상화함으로써 가정소설적 요소를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sup>38)</sup> 외무성장판본 <임경업전>을 대상으로 형성시기를 추정하고 선본을 논의한 박재민의 연구도 주목된다.<sup>39)</sup>

35) 김준형, 앞의 글.

36) 최윤희, 「<남정팔난기> 영웅 형상과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 대학원 박사, 2004.

37) 조혜란, 「여성, 전쟁, 기억 그리고 <박씨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38) 윤경아, 앞의 글.

39) 박재민, 「<임경업전>의 형성시기」, 『국문학연구』 11, 국문학회, 2004.

## 6. 소설일반

### 6.1. 소설론, 소설연구론

소설비평론으로서 주목되는 바는 조선 후기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편향성에서 벗어나 조선 전기 소설론을 본격 논의한 조태영의 연구이다. 조태영은 소설의 장르화 과정상 본격적인 소설에 선행하는 골계패설 등을 '선소설'로 개념화하고, '선소설'과 '본격소설'의 두 층위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조선전기 고전소설 비평을 고찰하여 이 시기 비평이 패관소설의 재미와 감동이 주는 심리적 해방 작용을 인식한 것에서부터 소설이 자아와 현실의 갈등을 우의적으로 문제 삼는 양식이라는 인식을 보인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sup>40)</sup> 조선 후기를 대상으로 할 후속 작업도 기대된다.

소설연구론으로는 먼저 소설 작품 평가의 제 문제를 정연하게 짚어낸 서대석의 연구를 주목해야 한다.<sup>41)</sup> 문학사적 가치가 아닌, 작품의 문학과 예술성을 평가함에 있어 작가 정신과 이를 형상화해내는 작가의 역량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소설이 여러 유형의 인물을 등장시켜 형상화하는 것인 만큼 정확한 주제 파악이 작가 정신을 평가하는 전제가 된다는 것과 재미와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설'로서의 형상화 수준을 문제 삼아야 함을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사실 여부를 문제 삼는 연구에 비해, 작품의 가치를 문제 삼는 연구는 단시일에 얻을 수 없는 문학과 삶에 대한 깊은 안목과 통찰이 요구되는 것임을 환기시키는 연구로서 연구자들에게 지침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음은 '고전소설과 여성'을 테마로 한 이지하의 논의이다.<sup>42)</sup>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여성을 주제로 한, 혹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고전소설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여러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논의한 이 연구는 해를

40) 조태영, 「조선 전기 문학관의 역동과 소설 비평의 진전」, 『고전문학연구』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41) 서대석, 「소설작품 평가의 문제-고소설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12, 국문학회, 2004.

42) 이지하, 「'고전소설과 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망」, 『국문학연구』11, 국문학회, 2004.

넘긴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전소설 연구 목록을 살펴보아도 단일 연구주제로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고전소설 연구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데, 이런 양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듯하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여성, 여성주의에 대한 연구자 개인의 의식 편차가 작지 않고, 그 결과 연구의 지향점도 각색이다. 많은 연구 편수에 비해 ‘여성주의적 고전소설 읽기’의 내실은 여전히 부실함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그간 고전소설 연구방법론과 관점에 있어 쟁점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류준경의 논의에서, 논의를 위한 전제로 논자는 연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의 부재와 연구의 파편화를 문제제기하였다.<sup>43)</sup> 가치 평가 기준의 부재는 표면적으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산출하지 못하는 실상과 맞물려 기존의 방법론을 추수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특히 대하소설 연구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은 뼈아픈 일침이다.

## 6.2. 비교문학

중국재자가인소설과 조선의 장편소설을 비교한 강미선의 학위논문은 조선의 소설향유 환경 속에 있던 중국소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모티프, 배경 설정, 인물 형상화의 측면에서 우리 고전소설과의 변별 지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고전소설의 독자성을 논의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가 선명하다.<sup>44)</sup> 소메야 토모유키의 <구운몽>과 <好色一代男>의 비교 연구도 흥미롭다. 조선과 일본에서 17세기 말 동시대 향유된 두 작품의 불교적 세계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 특히 <구운몽>과 <금강경>의 관계를 기존의 논의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성진과 팔선녀의 1:8관계를 만다라에서 부처와 보살의 1:8관계와 상통하는 것으로 본 관점이 인상적이다.<sup>45)</sup>

43) 류준경, 「고전소설 연구방법론과 관점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12, 국문학회, 2004.

44) 강미선, 「한·중 고전소설의 비교연구 : 중국재자가인소설과 17세기 한글소설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 2004.

45) 소메야 토모유키, 「동아시아 고소설과 불교-〈구운몽〉과 〈好色一代男〉의 비교」 『고소설 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6.3. 고전소설의 현재적 의의 모색

지난해 학계에서는 고전소설이 오늘날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연구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고소설이 담지한 가치와 연구자의 소임을 적극적으로 탐색한 한국고소설학회의 기획, 그리고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일련의 연구들이다. 김탁환은 디지털 매체의 발달이 이른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 형성과 소통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대적 상상력을 넘어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소스로서 고전소설의 가치를 적극 부여하였다.<sup>46)</sup> 더불어 정병설과 조현설은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고전소설 연구자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소설 연구뿐만 아니라 ‘TV드라마비평’이나 ‘고소설평론’이나 ‘고소설출판평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up>47)</sup> 한편, 구본기·송성욱이 보여준 대하소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문화콘텐츠 개발 사례는 이 방면의 선진적 연구 결과로서 소중한 의의를 가진다.<sup>48)</sup>

한편, 고전소설을 통한 “문학치료”라는 관점을 취한 연구 성과들이 속속 제출된 것도 지난해 주목되는 동향이다. 문학치료는 문학작품의 서사를 통해 환자가 안고 있는 서사의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서, 정운채와 그의 지도를 통해 제출된 일련의 학위논문들이 이러한 연구 경향을 형성하고 있다.<sup>49)</sup> 고전소설을 통한 문학치료의 가능성과 의의는 그동안 간간이 보이던 정신분석학자들의 고전소설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타당성을 엿볼 수 있는데, 작년에도 류인균의 <심청전> <콩쥐팍쥐전> 분석이 나와 이 방면에서

46) 김탁환, 「고소설과 이야기문학의 미래」,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47) 정병설, 「고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비교」,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조현설, 「고소설의 영화화 작업을 통해 본 고소설 연구의 과제-고소설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48) 구본기·송성욱,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연계방안>사례 발표-조선시대 대하소설을 통한 시나리오 창작소재 및 시각자료 개발」,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학회, 2004.

49)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정운채, 「고전문학 교육과 문학치료」, 『국어교육』 113,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4 ; 전영숙, 「<바리공주>를 활용한 문학치료의 실제 및 그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 2004.

고전소설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한다.<sup>50)</sup>

이처럼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를 적극 탐색하고 연구자를 독려한 연구 동향에 반해, 연구자들의 각성을 촉구한 것도 있으니, 바로 오늘날의 고전소설 번역 문제이다. 오윤선은 100년이 넘는 한국고전소설 英譯史를 개관하고, 침체에 빠진 오늘날의 상황을 문제제기하였다.<sup>51)</sup>



50) 류인균, 『한국 고소설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 <심청전> · <콩쥐팍쥐전>』 서울대 출판부, 2004.

51) 오윤선, 「<許生傳>의 英譯本을 통해 본 한국고소설 英譯의 문제」 『고소설연구』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참고문헌

## [단행본]

- 간호윤, 『억눌려 온 자들의 존재증명 : 고소설비평의 풍경』, 이회문화사, 2004.
- 강현모, 『한국설화의 전승양상과 소설적 변용』, 역락, 2004.
- 권도경, 『조선후기 전기소설사의 전변과 새로운 시각』, 보고사, 2004.
- 김찬기,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진(傳)』, 소명출판, 2004.
- 류인균, 『한국 고소설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 <심청전> · <콩쥐팥쥐전>』, 서울대 출판부, 2004.
- 민 찬, 『고전의 지평』, 다운샘, 2004.
- 박진태 외, 『춘향예술의 양식적 분화와 세계성』, 박이정, 2004.
- 박혜범, 『원홍장과 심청전 : 심청전 그 배경에서 작가 추론까지』, 박이정, 2004.
- 배영희, 『구운몽에 내포된 역학사상 탐구』, 민속원, 2004.
- 서신혜, 『김소행의 글쓰기방식과 삼한습유』, 박이정, 2004.
- \_\_\_\_\_ 편역, 『열녀 향량을 말하다』, 보고사, 2004.
- 안기수,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사, 2004.
- 안영훈, 『김유신전 연구』, 민속원, 2004.
- 윤경수, 『홍익인간과 서사문학』, 이회문화사, 2004.
-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춘향전>과 필사본 <남원고사>의 독자층에 대한 연구』, 보고사, 2004.
- 정준식, 『추노계 소설의 형성과 전개』, 세종출판사, 2004.
- 정창권, 『향량, 산수화로 지다』, 풀빛, 2004.
- 조광국, 『한국문화와 기녀』, 月印, 2004.
-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개정판)』, 보고사, 2004.
- 최호석, 『옥린몽의 작가와 작품세계』, 다운샘, 2004.
- 택민김광순교수 정년기념논총, 『한국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새문사, 2004.

## [학위논문]

## &lt;박사학위논문&gt;

- 강화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경성대 대학원 박사, 2004.
- 김종근, 「고소설의 남녀결연 서사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 2004.
- 서경희, 「<옥선몽>연구 : 19세기 소설의 정체성과 소설론의 향방」,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 2004.

- 이복자, 「<금오신화>의 우의성 연구」, 경성대 대학원 박사, 2004.
-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 창작기반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 2004.
- 이윤정, 「계모형 고소설 연구- 계모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 2004.
- 이정원, 「조선조 애정 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 2004.
- 이주희, 「<삼한습유>의 서사체계 및 작가의식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 2004.
-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 2004.
- 장준기, 「조선 후기 전쟁소설 연구」, 동아대 대학원 박사, 2004.
- 정규식, 「나말여초 전기문학의 주체와 의미」, 동아대 대학원 박사, 2004.
- 전영숙, 「<바리공주>를 활용한 문학치료의 실제 및 그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 2004.
- 최윤희, 「<남정팔난기> 영웅 형상과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 대학원 박사, 2004.

#### <석사학위논문>

- 강미선, 「한·중 고전소설의 비교연구 : 중국제자가인소설과 17세기 한글소설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석사, 2004.
- 강춘석, 「<옥란전>에 나타난 늑혼 갈등 양상과 의미」,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곽현선, 「<주생전>과<최척전>의 비교 연구」, 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구선정, 「<취미삼선록>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2004.
- 구자란, 「<동문선> 소재 가진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김대은, 「여성우위형 여성영웅소설의 근대적 성향 연구 : <이학사전>, <정수정전>, <홍계월전>을 중심으로」,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김유미, 「<수성지>의 서술구조와 주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2004.
- 김수영, 「<구운몽>과<서포연보>의 관련 양상」,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김은숙, 「<인현왕후전>과<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현실 대응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 2004.
- 김이태, 「<춘향전>의 문예 미학 연구 : 대중예술적 관점을 중심으로」,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김정선, 「<어룡전>과 <양풍전>의 비교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김정연, 「<옥선몽>의 장르 혼합 양상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김정주, 「연암 박지원의 한문단편 연구 : 여성인물의 특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김지은, 「쟁충형 가정소설의 증충서사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 2004.

- 김진경, 「<옥루몽>의 등장인물을 통해 본 작가의식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김철영, 「<금방울전> 연구 : 김동욱 소장 '경관20 장본'을 중심으로」,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김향란,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 2004.
- 김현수, 「<김인향전>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김현옥, 「<옥주호연>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2004.
- 김효식, 「<숙향전>의 환상성과 그 의미」,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남필숙, 「여성주의 시각으로 본 <장끼전>」, 원광대 대학원 석사 2004.
- 노정은,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화 면이 양상 : 이대본과 서울대21 권본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 2004.
- 류성심, 「<취유부벽정기>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문은희, 「<신재효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군산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민보영, 「김덕령에 대한 설화와 소설의 비교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 2004.
- 박래동, 「<구운몽> 여주인공들의 삶의 형상과 그 의미」,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박미선, 「<오유란전>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박민정, 「<김취경전>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 2004.
- 박영애, 「<박씨전>의 인물형상과 창작의식 연구」, 동의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박정호, 「가전문학 연구 : '술'을 입전한 작품을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반은경, 「판소리계 소설의 주변 인물 연구 : 열녀춘향수절가·심청전·홍부전·배비장전」,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백수근, 「계모형 고소설의 갈등구조와 인물 연구」, 전주대 대학원 석사, 2004.
- 서일녕, 「<옥단춘전>의 민요 이행 양상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 2004.
- 성기하, 「<운영전>과 <주홍글씨> 비교 연구 : 시대상과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송기분, 「<옹고집전>의 교육적 의미」,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송수익, 「<금오신화>의 작가의식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 2004.
- 송인중, 「<이춘풍전> 연구」, 군산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송지연, 「<홍길동전>의 공간 중심 교육 고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송호진, 「<방한림전>에 나타난 갈등 양상과 여성 의식」,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신은수, 「戊戌본(1898)완판 심청전의 표기 특징」, 국어사연구4, 국어사학회, 2004.

- 신선혜, 「<구운몽>에 대한 학문적 연구 성과의 교육현장 수용을 위한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안교선, 「<박씨전> 연구 : 「고대본」과 「한성서관본」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양지선, 「조선후기 영웅소설의 대중화 양상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 2004.
- 양용관, 「<남원고사>인물 연구 : 완판본·경판본·신재효본과 대비하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여정숙, 「<박씨전>에 나타난 현실과 초현실의 중첩성과 그 의미: 환상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유명희, 「<장화홍련전>과 <공쥐뿔쥐전>에 나타난 계모의 성격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윤지경, 「수용적 관점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허생전> 교육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이길원, 「금오신화에 나타난 김시습의 사상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 2004.
- 이상희, 「<정수경전>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이수진, 「<남원고사>의 삽입한시 연구」, 선문대 대학원 석사, 2004.
- 이은선, 「조선후기 애정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 <운영전>, <숙영낭자전>, <채봉감별곡>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이태영, 「완판본 <심청가> 해제 및 영인」, 국어사연구4, 국어사학회, 2004.
- 이현정, 「19세기초 세태소설 연구 : 「종옥전」과 「오유란전」을 중심으로」,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이형미, 「계모형 가정소설의 모자 갈등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 2004.
- 임성진, 「구활자본 애정소설 연구 : 「추풍감별곡」, 「부용의 상사곡」, 「청년회심곡」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 2004.
- 임성희, 「18세기 애정전기소설의 여성주인공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임수진, 「<금오신화>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와 내세관 :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장석기, 「<숙향전>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장영현, 「조선전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여성형상 연구 : 잡록류와 전기소설 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장종범, 「교전소설의 환상성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전근혜, 「<이생규장전>과 유관설화 비교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전영애, 「<운영전>의 환상성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정은영, 「<정비전>의 구조와 갈등 양상」, 부산대 대학원 석사, 2004.
- 정일승, 「<장화홍련전>의 구조적 특징 고찰」,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정현섭, 「<천군전>의 의미구조와 사상적 연역」, 경상대 대학원 석사, 2004.

정희진, 「<금오신화>의 현대적 계승 및 변용 연구 : 고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일환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조정희, 「<심청가>를 통한 자기서사 발견과 창작치료」,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조선미, 「<숙녀지기>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주경은,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주영아, 「<문벌공기사(박태보전)>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 2004.

최다익, 「<주생전>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최석환, 「춘향전에 나타난 속담의 구사양상과 효과 : 완판본 춘향전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최윤경, 「<구운몽>을 이용한 문학치료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한선희, 「<주생전>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 2004.

한정양, 「<이춘풍전>과 그 상호 관련 작품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허우석, 「<이대봉전> 연구 :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황지웅, 「<삼선기>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황진목, 「<포의교집>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 2004.

[학술지논문]

간호윤, 「소설 수용 시조의 현황과 비평적 함의」, 『동양고전연구』 20, 동양고전학회, 2004.

강동엽, 「<최척전>에 나타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구-경북어문학회), 2004.

경일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승의 인물 유형과 문학적 기능」, 『어문연구』 44, 어문연구학회, 2004.

곽정식·강화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역사적 전개」, 『인문과학논총』 9,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구본기·송성욱,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연계방안>사례 발표-조선시대 대하소설을 통한 시나리오 창작소재 및 시각자료 개발」,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권도경, 「근대 이행기 한문소설<포의교집>에 나타난 여성의 몸 몸의 주체성 실현 양상과 그 의미」, 『인문연구』 47,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권순금, 「근대의 충격과 고소설의 대응-개, 신작 고소설에 투영된 '남녀관계'의 소

- 설사적 고찰,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_\_\_\_\_, 「이옥 전의 시정세대 묘사와 풍자」, 『한문교육연구』 23,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 김정미, 「〈옥수기〉 연구-이념적 요소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모색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_\_\_\_\_, 「淫詞小說의 수용과 19세기 한문소설의 변화-〈금병매〉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 김경숙, 「동양문고본 <남정팔난기〉 연구」, 『열상고전연구』 20, 열상고전연구회, 2004.
- 김광순, 「〈전군전〉의 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어문논총』 40, 한국문학언어학회(구-경북어문학회), 2004.
- \_\_\_\_\_, 「새로 발굴한 <유성현봉 소설록〉에 대하여」, 『어문논총』 40, 한국문학언어학회(구-경북어문학회), 2004.
- 김귀석, 「〈雲英傳〉의 媒介詩 연구 : 宮女들의 漢詩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13, 한국고시가문학회, 2004.
- 김도환, 「〈삼국지연의〉의 구활자본 고전소설로의 개작 양상」, 『중국소설논총』 20, 한국중국소설학회, 2004.
- 김동협, 「〈금생이문록(琴生異聞錄)〉의 창작배경과 서술의식」, 『동방한문학』 27, 동방한문학회, 2004.
- 김문희, 「전기소설의 전기적 서술양상과 그 함의」,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김보현, 「〈기재기이(企齋記異)〉의 사상적 토대와 미의식」,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김승호, 「佛敎傳奇小說의 類型 설정과 그 전개 양상」,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_\_\_\_\_, 「〈周王傳〉에 나타난 合成的 서사 구성 양상과 그 의미」, 『어문연구』 1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김유미, 「〈수성지(愁城志)〉의 구조적 특성과 그 의의」,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김정녀, 「〈금화사몽유록(金華寺夢遊錄)〉의 이본(異本) 계열과 선본(善本)」, 『민족문화연구』 41,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2004.
- \_\_\_\_\_, 「〈삼한습유〉에 나타난 예(禮)에 관한 논쟁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 김정숙, 「〈洛東野言〉 所載 소설에 대한 일고찰-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의 관점에서-」,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 「<백운선원춘결연록>의 통속성 연구-재자가인소설과 관련하여」, 『어문론집』 49, 민족어문학회, 2004.
- 김정희, 「아쿠타가와와 <金將軍> 과 朝鮮筆談小説<壬辰錄>」, 『일본문학 속의 기독교 : 한국일본기독교문학연구총서』 2, 한국일본기독교문학회 2004.
- 김종서, 「<손곡산인전(孫谷山人傳)>과 이달의 생애」, 『한문학보』 11, 우리한문학회, 2004.
- 김준형, 「<금선각>의 발굴과 소설사적 의의」,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 「15~16세기 서사문학사에서 갈래간 넘나들의 양상과 그 의미: 필기 패설, 전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4, 민족문학사학회, 2004.
- 김진영, 「<토끼전, 수궁가>의 인물형상」,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 김탁환, 「고소설과 이야기문학의 미래」,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김현양, 「16세기 소설사의 지형과 위상」,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 김혜정, 「<方翰林傳>연구 : 여성영웅소설의 변모 양상과 ‘女 女 결연’의 소설적 전통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0, 동양고전학회, 2004.
- 류준경, 「고전소설 연구방법론과 관점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12, 국문학회, 2004.
- , 「朴孝娘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 민영대, 「<최낭전>에 삽입된 시문의 기능」, 『한국언어문학』 52, 한국언어학회, 2004.
- 박인희, 「<장유성전>의 연원과 특징」, 『새국어교육』 68, 한국국어교육학회, 2004.
- 박일용, 「<만복사저포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박재민, 「<임경업전>의 형성시기」, 『국문학연구』 11, 국문학회, 2004.
- 박재연;김영, 「에스턴 구장 번역고소설 필사본<슈사유문 隋史遺文> 연구 : 고어 자료를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3,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4.
- 박종익, 「고소설 <원회록>의 소재 분석」, 『어문연구』 44, 어문연구학회, 2004.
- 백민정, 「담화 육구의 문학 양식적 파생 양상 고찰 : 고전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대중성과 여성성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6, 어문연구학회, 2004.
- 상기숙, 「<홍루몽>과 <완월회맹연>적 점복신앙비교」, 『동방학』 1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4.
- 西岡健治, 「일본에서의 <춘향전> 번역의 초기양상-도수야사역 <계림정화춘향전>을 대상으로-」,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구-경북어문학회), 2004.
- 西岡健治 교수, 박상득 번역, 「<雞林情話 春香傳> 해제 및 원문, 번역문」, 『고소

- 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서대석, 「소설작품 평가의 문제-고소설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2, 국문학회, 2004.
- 서신혜, 「〈만화몽유록(晩河夢遊錄)〉에서 작시와 유람의 기능」,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구-경북어문학회), 2004.
- \_\_\_\_\_, 「〈만화몽유록〉을 통해 본 애국계몽기 선계서사의 양상」, 『도교문화연구』 20, 한국도교문화학회, 2004.
- \_\_\_\_\_, 「〈삼생록〉의 형상화 특성에 담긴 민중의 꿈」, 『한국언어문화(구 한양어문)』 25,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 서유경, 「〈임경업전〉의 비극성에 대한 표현 문화론적 고찰」, 『문학교육학』 13,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 \_\_\_\_\_, 「〈심청전〉 변이의 소통적 의미 연구-공양미 삼백 석 시주 약속에 대한 심청의 반응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 소메야 토모유키, 「동아시아 고소설과 불교-〈구운몽〉과 〈好色一代男〉의 비교」,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송성욱, 「고전소설과 TV드라마」,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 \_\_\_\_\_, 「〈천수석(泉水石)〉의 텍스트 결합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신동훈, 「설화와 소설의 장르적 본질 및 문학사적 위상」, 『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2004.
- 심상필, 「〈기계기이(企齋記異)〉의 성격과 위상」, 『민족문학사연구』 24, 민족문학사학회, 2004.
- 신선희, 「고전 서사문학과 게임 시나리오」,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신태수, 「〈기계기이〉의 환상성과 교환 가능성의 수용 방향」,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심치열, 「구활자본 애정소설 〈약산동대(藥山東臺)〉의 서사적 측면에서 본 변모 양상-〈춘향전〉의 전승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 \_\_\_\_\_, 「〈양산백전〉의 서사적 특성 연구」, 『돈암어문학』 17, 돈암어문학회, 2004.
- 안동준,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지리산 담론의 의미」, 『배달말』 35, 배달말학회, 2004.
- 안영훈, 「〈김유신전〉의 두 계열과 창작 양상」,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구-경북어문학회), 2004.

- \_\_\_\_\_, 「〈달천몽유록〉역해」, 『새얼어문논집』 16, 새얼어문학회, 2004.
- 양승민, 「〈김영철전〉의 형상화방식과 그 작가의식」, 『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2004.
- \_\_\_\_\_, 「〈승정원일기〉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 양승민·박재연, 「원작 계열 〈김영철전〉의 발견과 그 자료적 가치」,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엄기영, 「〈대관계기몽〉의 창작 방법 연구-창작 소재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오운선, 「〈許生傳〉의 英譯本을 통해 본 한국고소설 英譯의 문제」,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유춘동, 「세책본 〈금령전〉의 텍스트 위상 연구」, 『열상고전연구』 20, 열상고전연구회, 2004.
- 윤경아, 「〈곽중운전〉-계모와 열녀의 운명」, 『문헌과해석』 28, 문헌과해석사, 2004 가을호.
- 윤세순, 「16세기 중국소설의 국내유입과 향유양상」, 『민족문화사연구』 25, 민족문화사학회, 2004.
- 윤주필, 「동아시아 고소설의 우연 활용의 비교고찰-전통적 몽유/쟁변 화소의 상상 체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 윤채근, 「김민중 사유의 세계표상 양식과 〈구운몽〉-공의 의미와 통속성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4, 한국한문학회, 2004.
- 이강엽, 「"자기실현"으로 읽는 〈옹고집전〉」,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이명현, 「〈양산백전〉에 나타난 하늘의 의미」, 『인문학연구』 37,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 이민희, 「구활자본고소설〈서산대사전西山大師傳〉연구」, 『국학연구』 5, 한국국학진흥원, 2004.
- 이상구, 「〈구운몽〉의 구조적 특징과 세계상」, 『민족문화사연구』 25, 민족문화사학회, 2004.
- 이승복,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고전소설의 세계관 이해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2004.
- 이윤경, 「고전의 영화적 재해석-고전의 영화화 양상과 그에 대한 국문학적 대응」, 『돈암어문학』 17, 돈암어문학회, 2004.
- 이지영, 「〈回仙悟世邯鄲奇話〉에 나타난 장편 한문소설의 특징과 지향」,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_\_\_\_\_, 「〈사씨남정기〉 한문본과 한글본의 비교 분석-규장각 소장본과 장서각 소

- 장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37, 한국문학회, 2004.
- 이지하, 「'고전소설과 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망」, 『국문학연구』 11, 국문학회, 2004.
- \_\_\_\_\_,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이테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 \_\_\_\_\_, 「인물형상화방식을 통해 본 <창난호연록>의 통속성」, 『한국문화』 3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4.
- 이태연, 「지역 전통 문화의 기반 구축과 그 활용 방안 :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 활용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4.
- 임치균, 「사랑과 갈등에 대한 남성의 시각 뒤집어 보자<옥환기봉> 과 <한조삼성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 장경남, 「<천군전>으로 본 16세기 소설사의 한 경향」,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 장시광,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 \_\_\_\_\_, 「<윤하정삼문취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양상과 그 서사적 기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 \_\_\_\_\_, 「<이씨세대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양상과 그 의미」, 『동방학』 1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4.
- 전성운, 「<여와전>과 <봉신연의> 대비의 소설사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2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 \_\_\_\_\_, 「<천군연의>와 연의소설의 상관성」,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학회, 2004.
- 전이정, 「이형경전(이학사전) 연구」, 『진농어문연구』 15·16, 서울시립대 국문과, 2004.
- 전혜경, 「베트남傳奇小說『傳奇漫錄』에 대한 비교 연구 : 한국 중국 傳奇小說 과 비교적 관점에서」, 『베트남연구』 5, 한국베트남학회, 2004.
- 정규복, 「<구운몽> 텍스트 문제의 근황」, 『민족문화연구』 40,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2004.
- 정병설, 「고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비교」,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_\_\_\_\_, 「일본인의 한국어 교재 속향전」, 『문헌과해석』 26, 문헌과해석사, 2004봄호.
- \_\_\_\_\_, 「일본 교토대학소장 새 자료 소개」, 『문헌과해석』 28, 문헌과해석사, 2004가을호.

- \_\_\_\_\_, 「빌린 소설에 그린 낙서」, 『문헌과해석』 29, 문헌과해석사, 2004겨울호.
- \_\_\_\_\_, 「17세기 동아시아 소설과 애정」, 『청구학술논집』, 한국문화연구진흥재단, 2004.<sup>52)</sup>
- \_\_\_\_\_, 「2003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국문학연구』 12, 국문학회, 2004.
-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_\_\_\_\_, 「고전문학 교육과 문학치료」, 『국어교육』 113,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4.
- 정인혁, 「조선후기 한문단편소설의 공간과 인물 연구-「다모전 茶母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 정창권, 「조 선조 궁중여성의 소설문화」,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 정환국, 「〈설공찬전〉의 파동과 16세기 소설인식의 추이」,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 \_\_\_\_\_, 「나말여초 전기의, “육망의 형식화”에 대하여 -초기소설의 성립과정에 주목하여」, 『한문학보』 11, 우리한문학회, 2004.
- 조광국, 「〈엄씨효문정행록〉에 구현된 별열가부장제」, 『어문연구』 1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_\_\_\_\_, 「〈채세영이야기〉를 통해본 16세기 풍류세대의 한 단면」,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회.
- \_\_\_\_\_, 「〈청백운〉 한문본 연구-서지 연구와 서문 분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조상우, 「〈최고운전〉에 표출된 “대중화(對中華) 의식”의 형성배경과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 \_\_\_\_\_, 「애국계몽기 한문소설에 표출된 지식인의 여성인식-〈만하몽유록〉과 〈여영웅〉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 조재현, 「고전소설의 환상성 연구-〈두홍전〉에 나타나는 환상성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3,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4.
- 조태영, 「조선 전기 문학관의 역동과 소설 비평의 진진」,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 \_\_\_\_\_, 「한국 고전소설비평에서의 消遣論의 전개」,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2004.
- 조현설, 「고소설의 영화화 작업을 통해 본 고소설 연구의 과제-고소설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52) 일본어 논문으로 일본 소재 한국문화연구진흥재단에서 출간함.

- \_\_\_\_\_, 「형식과 이데올로기의 분화-16세기 풍유록의 생성과 전개」, 『민족문학사 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 조혜란, 「다매체 환경 속에서의 고소설 연구 전략」,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_\_\_\_\_, 「여성, 전쟁, 기억 그리고 <박씨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 지연숙, 「<최척전> 이본의 두 계열과 善本」, 『고소설연구』 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 \_\_\_\_\_, 「<화사> 텍스트 연구」, 『한국민족문화』 2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 차충환, 「국문필사본<춘향전>의 계열과 성격」,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 \_\_\_\_\_, 「홍윤표 소장 154장본<춘향전> 연구」,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 최정탁, 「판소리계 소설의 서사구조」, 『안동어문학』 9, 안동어문학회, 2004.
- 최지연, 「<옥루몽(玉樓夢)>의 여성 인물 형상화와 그 의미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최진형, 「고소설 향유 관습의 한 양상-<장끼전> 작품군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 \_\_\_\_\_,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개작 지향(2)-두 가지 지향의 공존과 통합 양상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 한길연, 「<옥원재합기연>과 <완월회맹연>의 비교 연구」, 『국문학연구』 11, 국문학학회, 2004.
- \_\_\_\_\_, 「<완월회맹연>의 모티브 활용 양상 연구」, 『성심어문논집』 26, 성심어문학회, 2004.
- 한의승, 「성흔과 송익필의 <은아전(銀娥傳)>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 \_\_\_\_\_, 「<포의교집>의 문체와 서사적 특징」, 『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구-경북어문학회), 2004.
- 홍순일, 「<심청가>의 후대적 변이와 의미-갈등구조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 황혜진, 「독자 비평 자료를 통해 본 고전소설의 효용에 대한 연구」, 『문학교육학』 15, 역락, 2004.
- \_\_\_\_\_, 「<쌍미기봉>에 형상화된 애정의 양상과 의미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lt;고전소설 자료&gt;

- 구인환 편, 『김씨열행록-우리고전 다시 읽기』, 신원문화사, 2004.  
 \_\_\_\_\_, 『옥단춘전-우리고전 다시 읽기』, 신원문화사, 2004.  
 \_\_\_\_\_, 『낙성비룡-우리고전 다시 읽기』, 신원문화사, 2004.  
 \_\_\_\_\_, 『홍계월전-우리고전 다시 읽기』, 신원문화사, 2004.  
 \_\_\_\_\_, 『임경업전-우리고전 다시 읽기』, 신원문화사, 2004.  
 \_\_\_\_\_, 『조웅전-우리고전 다시 읽기』, 신원문화사, 2004.  
 \_\_\_\_\_, 『몽유록-우리고전 다시 읽기』, 신원문화사, 2004.  
 \_\_\_\_\_, 『유충렬전-우리고전 다시 읽기』, 신원문화사, 2004.  
 \_\_\_\_\_, 『임진록-우리고전 다시 읽기』, 신원문화사, 2004.  
 \_\_\_\_\_, 『안동량전-우리고전 다시 읽기』, 신원문화사, 2004.  
 김진영 외 공역주, 『화용도-고전문학역주총서4』, 민속원, 2004.  
 \_\_\_\_\_, 『토끼전-고전문학역주총서3』, 민속원, 2004.  
 김진영 외 편저, 『심청전 전집(12)』, 박이정, 2004.  
 \_\_\_\_\_, 『춘향전 전집(11~17)』, 박이정, 2004.  
 \_\_\_\_\_, 『실창 판소리사설집』, 박이정, 2004.  
 김성재 글, 이광택 그림, 『홍부전-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고전』, 현암사, 2004.  
 김현양 글, 김광배 그림, 『조웅전-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고전』, 현암사, 2004.  
 박계연·양승민 교주, 『옥기린(玉麒麟)』, 다운샘, 2004.  
 송성욱 글, 『춘향전』, 민음사, 2004.  
 \_\_\_\_\_, 『사씨남정기』, 현암사, 2004.  
 이대형 교주, 『하진양문록(1, 2, 3)-연세국학총서34』, 이회문화사, 2004.  
 이명구 해설, 『홍부전·심청전-하서명작선100』, 하서출판사, 2004.  
 \_\_\_\_\_, 『홍부전·홍길동전·전우치전·유충렬전-하서명작선097』, 하서출판사, 2004.  
 홍기원 글, 『인목대비의 서궁일기』, 민속원, 2004.  
 『평노괴 평요연(조선시대 번역고소설총서4)』,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이회문화사.  
 『동유기(조선시대 번역 고소설총서15)』,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이회문화사  
 『홍루봉보(조선시대 번역고소설총서16)』,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이회문화사  
 『홍루부몽 상, 하(조선시대 번역 고소설총서19)』,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이회문화사.

『홍루몽 상, 하(조선시대 번역 고소설총서19)』,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이회문화사.

『속홍루몽-조선시대 번역고소설총서21』,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이회문화사.

『보홍루몽-조선시대 번역고소설총서20』,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이회문화사.

『후홍루몽-조선시대 번역고소설총서19』,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이회문화사.

『花氏忠孝錄 : 樂善齋本古典小說資料集(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4.

K C I

КСІ